

[전체공지]

-특이 사항 없음 -

[코로나 관련 공지사항]

1. 성당내 마스크 필수 착용
2. 표시된 좌석에만 앉기
3. 주보를 인쇄하여 배부하지 않고, 단체 카톡 방에 공지

[잭슨빌]

1. 성당 에어컨 냉방 운전이 스마트앱으로 자동으로 조절 되오니 온도 조절기를 만지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2. 성당 출입문 도어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출입 코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례부 최마리아 자매님께 문의 바랍니다.
3. 세인트 어거스틴 교구 전산 시스템이 7/1자로 바뀜에 따라 이번 주 주일 7월 5일 미사후 2020년 상반기 회계 보고가 있겠습니다.

[게인즈빌]

-특이 사항 없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무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111	\$630	-	\$741
잭슨빌	\$692	\$350	-	\$1,042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진모 펠릭스 (904) 909-5080 성당 (904) 573 - 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換)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공동체		
주일 미사	매주 일요일 10시30분	주일특전미사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첫째, 셋째 금요일 저녁 8시 매주 목요일 오전11시	평일 미사	-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9시30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전 미사 후	-	-
성시간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미사 전	주일학교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저녁 7시	예비자 교리	-
사목회의	둘째 주 주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전
사목회	총무 이토마스 (904) 416-7437 /김스테파니아 (904) 613-9245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352) 727-0452

오늘의 묵상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유일한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순교는, 신앙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서 가장 숭고한 신앙의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고, 그들의 숭고한 신앙의 증거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와도 같은 순교자들은 분명 희망을 간직한 이들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순교자들을 기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지금 우리’입니다. 순교자를 현양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 맞고 피 흘리는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다른 이유 때문에 신앙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순교자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렬히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고, 믿음을 통하여 얻는 기쁨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연중 제14주일)

[제1독서] 마태 23,35

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즐카르야를 살해하였다.

[화답송] 시편 31(30),3ㄷ 르-4.6과 7ㄴ과 8ㄱ.17과 21ㄱ ㄴ(◎6ㄱ)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제2독서] 로마서 5,1-5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0,17-22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1독서	제2독서	봉 현
이번주	게인즈빌 (7/4)	임윤미 플로라	정필승 사도요한	전수진 마리아	-
	잭슨빌 (7/5)	이교순 카타리나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김정숙 젬마
다음주	게인즈빌 (7/11)	최건화 안젤라	천창준 레오	천희제 레아	-
	잭슨빌 (7/12)	윤미임 데레사	최차숙 마리아	윤태미 마리아	김부영 스테파니아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현	성 체	파 견
게인즈빌	327	585	586	642
잭슨빌	287 (1,2절)	342	154	287(3,4절)

